

현실공감 에피소드로 정의 외친 '리갈하이', 아쉬운 종영

'리메이크 무색' 원작 팬들에 실망감 안겨

리갈하이 가 원작 팬들에겐 아쉬움을 남긴 채 조용하게 종영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 리갈하이(극본 박성진, 연출 김정현, 제작 GrG프로덕션, 이매진 아시아) 마지막회는 고태립(진구 분)과 서재인(서은수 분)이 한강그룹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며 정의를 찾는 모습이 그려진 가운데, 2.6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강신소재 독성물질 유출사건 민사소송과 관련한 나철진(이태영)의 형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됐고, 고태립(진구)과 서재인(서은수)은 민주경(제정안)과 윤상구(정상훈)의 도움으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승률 100% '괴태' 고태립은 변호사를 그만뒀다. 권선징악 엔딩이었다.

코믹 범죄 활극 리갈하이 원작 팬들에겐 리메이크 드라마라는 점이 무색할 정도로 실망감을 안겼다.

리갈하이 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승소를 위해서라면 기성천외한 방법도 동원되는 소위 웃기는 법정

극으로 인기를 모은, 일본 후지TV 동명의 드라마가 원작이다. 일본은 물론 한국에도 다수의 팬을 보유한 작품인 만큼 방영 전부터 리메이크작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방영 내내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 원작에 충실해달라는 불만이 이어졌다. "쓸데 없는 설정 빼고 '코믹 범죄' 드라마 취지 좀 살렸으면" "이 드라마의 핵심은 공감과 감성이 아니라 냉정과 총질임"이라며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배우들의 유쾌한 연기 변신은 매력적인 관전포인트였다. 진구는 과장한데 맞는 말만 하는 변호사 고태립 역을 맡아 "코믹 연기도 잘한다"는 평을 얻었다. 시종일관 극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진짜 변호사로 성장한 서재인 역의 서은수, 고태립을 넘어서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따뜻한 카리스마 강기석 역의 윤박, 무시무시한 조폭 보스 과거를 가진 에이스 변호사 민주경 역의 제정안, 잔재 웃음 유발자 윤상구 역의 정상훈 등도 다양한 매력으로 회



를 거듭할수록 돋보이는 케미를 보여줬다. 매회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은 우리시대 현실을 풍자해 공감을 얻었다.

다. 구박받던 알바생이 점주의 살해 의혹을 받은 '알바생 살인사건',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연인이었던 남자를 스토커로 고소한 '웨딩촬영

장상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동물 마케팅 강요로 직원들이 파업을 선언했던 '대오그룹 합인 사건', 유명 작가의 곡을 표절한 '저작권 소송

재판, 검사와 판사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이웃 폭행 사건', 아역 배우가 부모와의 인연을 끊으려 진행한 '친권경쟁 심판', 한강그룹의 횡령이 드러났던 '부당 해고 소송', 9살의 여아이를 사막에 한 '한강신소재 독성 물질 유출 사건'까지 매회 펼쳐지는 법정 승부는 현실을 한 번쯤 다시 돌아보게 했다.

무엇보다 이 드라마가 던진 화두는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인간이 100명이면 정의도 100개. 다 지게 맞다고 우겨대는 아시리판이 바로 법정"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진 고태립은 의뢰인이 거액의 수임료만 지불할 수 있다면 유죄도 무죄로 만들어냈다.

"넌 정의'를 외치며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서재인에게 고태립은 돈만 밝히는 속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일하며 고태립만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세상에 절대적 정의가 존재하는 것일까 "정의는 돈이 아니라 진실로 사는 겁니다." 배우 진구가 던진 말은 한 번쯤은 생각해볼만한 주제였다.

블랙핑크→방탄소년단→트와이스 컴백



별들의 전정인 4월이 펼쳐진다. 최근 승리 사태로 K팝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탄소년단부터 트와이스까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들이 4월 대거 컴백하며 식여기는 열기에 기름을 부을 전망이다.

4월의 포문을 여는 가수는 걸그룹 아이즈원(IZ*ONE)과 그룹 엑스첸이다. 먼저 아이즈원은 1일 두 번째 미니앨범 '하트아이즈'(HEART*IZ)를 발매한다. 이번 앨범에는 한층 더 새로워진 음악 및 메시지가 담겨 있어 팬들의 기대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앨범 프로듀스 48을 통해 지난해 데뷔한 아이즈원은 신인, 그리고 걸그룹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음원 및 음반 차트 석권 신인상 5관왕 등 글로벌 인기를 과시했던 만큼 이번 활동을 향한 글로벌 팬들의 기대치는 매우 높다.

아이즈원과 같은 날 첸은 데뷔 후 첫 솔로앨범 '사월, 그리고 꽃'(April, and a flower)을 발매한다. 첸은 엑스 멤버로서 감미로운 보이스와 탁월한 가창력을 인정 받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외에도 첸은 엑스 첸백시 유닛 활동으로도 다채로운 콘셉트와 개성 있는 음악 색깔을 선보였다. 지금까지 OST 등

여러 작업물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줬으나 솔로 앨범이 없어 그의 음악을 오롯이 느끼기 어렵다는 아쉬운 점을 이번 앨범을 통해 확실히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5일에는 블랙핑크가 새 EP앨범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를 발매한다. 이번 앨범에서 블랙핑크는 자신들의 대표곡을 탄생시킨 데티와의 협업은 물론 '뚜뚜뚜'보다 더 강력한 걸스합창을 선보일 것이라고 예고해 기대가 매우 높다.

12일에는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 MAP OF THE SOUL: PERSONA를 발매한다. 전 세계적인 K팝 열풍을 만든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을 발매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 아미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이번 앨범은 LOVE YOURSELF 시리즈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 더욱 큰 주목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기대는 281만5000장이라는 앨범의 선주문량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방탄소년단이 K팝 사상 최초로 단일 앨범 300만장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트와이스 또한 4월 중 컴백을 확정했다. 트와이스는 지난 2월 신곡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뒤 마지막 앨범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발매하는 앨범마다 연속 히트시키며 명실상부 아시아 원톱 걸그룹으로 우뚝 올라선 트와이스가 이번 앨범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높다.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안방극장 로맨스 드라마 3파전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과 함께 안방극장에도 로맨스 드라마가 찾아온다. 최근 몇 년간 로맨스보다는 장르 드라마가 주를 이뤘던 것과 달리, 올 봄에는 다양한 색깔의 로맨스 드라마가 시청자들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 박민영 '김비서' 이후 2연타 로코 흥련 칠까

먼저 10일에는 케이블TV tvN '그녀의 사생활'(극본 김혜영 연출 홍종찬)이 전파를 탄다. 이 작품은 직장에선 완벽한 큐레이터지만 알고 보면 아이돌 덕후인 성덕미(박민영)가 꺼쥘한 상상 라이언(김재욱)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극중 성덕미는 미술관 큐레이터로서는 물론 아이돌 덕후로서도 남다른 프로정신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 같은 성덕미의 이중생활은 스타일 변신으로도 시선을 강탈한다. 화이트 슈트 차림의 큐레이터 성덕미가 마치 킬러를 연상케 하는 울

블랙 차림의 '프로 덕후'로 변신하며 낮과 밤이 다른 완벽한 이중생활을 보여주는 것 이 밖에도 성덕미는 "직장에서 덕망이웃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라며 '이이' 풀 덕후들의 심리를 대변하는가 하면 성덕미가 완벽히 다른 사람처럼 변신하며 직장도 덕후 활동을 병행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지난해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로 각광받은 박민영은 이번에는 꽃미남 외모의 김재욱과 호흡을 맞춰 로맨틱 코미디 2연속 흥련을 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웨메이드' 안판석의 로맨스, 한지민·정혜인과 만났다

JTBC '발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밀회' MBC '하얀 거짓말' 등으로 섬세한 감각의 연출력을 인정받은 안판석 감독이 '발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김은 작가와 다시한번의 기특하게 합했다. 5월 방송을 앞둔 MBC 새

수목드라마 '봄밤'은 최근 대본 리딩 현장을 공개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봄밤'은 봄날을 배경으로 두 남녀가 오롯이 사랑을 찾아가는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극 중 한지민은 지역 도서관 사서 이정민 역으로 정혜인은 약사 유지호 역으로 분해 사랑을 엮어간다. 한지민은 여 주인공의 다채로운 감정 변화를 특유의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소화하는 데 이어 정혜인은 성숙하면서도 더욱 깊어진 목소리와 흡인력 있는 눈빛으로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여기에 감동받은 이정민의 남자 친구 권기석 역을 맡아 오래된 연인을 향한 애정과 불안을 보여준다. '안판석 시대' 이라고 불리는 가수 겸 배우 김창완, 배우 김혜연, 서정연 등도 합류해 작품의 안정적인 호흡을 살려줄 전망이다. 주인공뿐 아니라 극중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세밀한 묘사로 각광받은 안판석 감독인 만큼 '발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에 이어 다시 한번 도전하는 로맨스 드라마가 어떤 느낌을 펼쳐질지 주목된다.

◆ 감우성·김하늘이 선보이는 어른들의 로맨스는 어떤 모습?

감우성과 김하늘은 '어른들의 로맨스'를 표방하며 새로운 감성 비빔을 몰고 온다. '오라차차 와이키키 2' 후속으로 오는 5월 방송되는 JTBC 새 월화드라마 '비림이 분다'(극본 황후자 연출 정정화)는 감우성, 김하늘이 남녀주인공으로 활약한다. '비림이 분다'는 이별 후에 다시 사랑에 빠진 두 남녀가 여제의 기억과 내일의 사랑을 지켜내는 로맨스를 그린다. 감우성은 한 여자와 두 번 사랑에 빠지는 남자 도훈으로 분한다.

지난해 그에게 연기대상을 안겨준 '키스 먼저 할까요?', 수많은 마니아를 거느린 '연애시대' 등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멜로 수작들을 남겨온 감우성은 특유의 깊은 감정선을 섬세하게 풀어내며 시청자들의 감수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풀 뜯어먹는 소리3', 해녀로 완벽 변신

tvN '풀 뜯어먹는 소리3'가 1일 첫 방송에 앞서 공개한 스틸컷에는 출연진이 전신 바디수트로 중무장, 해녀로 완벽 변신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tvN '풀 뜯어먹는 소리3'는 농어촌을 지키고 있는 전구 청년 농부와 어부를 만나며 시골을 지킬 새로운 방법을 찾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고당 농부 한태웅은 자신

과 같은 대농의 꿈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만나며 대농의 꿈에 한걸음 다가설 예정. 새로운 세상을 접하며 성장해나갈 한태웅의 새로운 도전이 흥미진진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태웅과 함께 박명수, 박나래, 양재찬이 활약을 앞두고 있다.

공개된 스틸 속 '풀 뜯어먹는 소리3' 멤버들은 몸에 딱 달라붙

는 전신 바디수트를 입은 채 바닷가를 걸어가고 있어 시선을 강탈한다. 오리발 물안경뿐만 아니라 주홍빛 테왁(해녀가 사용하는 부표), 망사리(해물을 담아두는 그물)를 짚어준 모습에서 베테랑 해녀의 포스가 풍기는 것.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생생한 농촌 라이프를 보여줬던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서 출연진이 여촌까지 정복할지 많은 궁금증이 집중되고 있다.

1월 저녁 8시 10분 첫 방송.

오늘의 운세 2019년 4월 1일 월요일 (음력 2월 26일)

	<p>▶경고 자존심을 한 번쯤 꺾는다고 해서 손해 보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당장은 견디기 힘들겠으나 지나고 나면 마음도 편하고 득도 있겠다. 내가 먹고, 남은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은 대접이 아니다. 5, 8, 12월생은 베풀라. 북, 동쪽에서 도움을 준다.</p>		<p>▶음력 계획대로 순조로나 애매가 무겁다. 더욱더 분발하면 칭송받겠다. 처자식 있는 몸이 늦게 삶을 변동한다는 것은 사회적 가정적으로 지탄받는 일이니 심사숙고해서 신중히 처신하라. 서북쪽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p>		<p>▶원숭이 하루하루 살면서 건강에 신경 쓸 틈도 없이 달려왔지만 알아주는 이 하나도 없구나. 부부간의 비밀은 보장받지 못한다. 마음이 변해서 원망이 되고 이별로 이어질 운이니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라. 3, 7, 9월생 자신을 억척할 것.</p>
	<p>▶사슴 세상의 눈에 신경을 쓰지 말고 순리대로 행한다면 부정을 물리칠 수 있다. 자신을 도울 이는 어려울 때 같이 지낸 사람이나 속사정을 말하고 진실 보여라. 속이는 것은 비겁하다. 4, 6, 11월생 마음을 비워라.</p>		<p>▶황새 당장은 고전을 면하기 어렵지만 재기의 빛이 보인다. 한탕주의만 버린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듯. 하는 일에 자신을 갖고 노력에 노력으로 추진하면 만사형통하겠. 2, 5, 11월생 애정에서는 양보심만이 행복을 찾을 수.</p>		<p>▶말 의욕이 상실되어 모든 것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뿐. 마음의 안정을 찾고 새로운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라. 기, 지, 증 성씨 애정은 위기일발 이별수가 뒤따라 듯. 어떠한 문제에 당면해도 차분히 해결해 나감이 좋다.</p>
	<p>▶황새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할 때. 자신의 신분과 분수를 지키고 주어진 일에 전념해야만 모든 것이 길하다. 3, 7, 12월생 무조건 좋다고 사랑이 아니다. 후회할 일 생길 듯하니 구분해서 사랑하라.</p>		<p>▶양 자책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고난의 길은 자신이 만드는 것. 생각하라 어려운 고비는 누구에게나 있으나 종류가 다를 뿐이라는 것을. 자신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한다. 지, 천, 오 성씨 인내가 필요할 때이다.</p>		<p>▶개 징장인은 찬사를 받겠다. 인기인은 명성을 떨치니 행운의 날이 될 듯. 자기관리에 힘쓰는 것이 내일의 발전임을 알라. 기, 사, 비 성씨는 자기행동이 분명하다면 행운이 따를 듯. 1, 2, 3월생 액운을 없애려면 검정색을 피하라.</p>
	<p>▶토끼 마음이 어리엔 같아 부부간에 잔정을 받고 싶다 생각 말고 자신도 자상함을 보여줘라. 먼저 다가가는 마음을 전달하면 정성이 하늘에 닿아 조화를 이루니 대길 운. 비, 리, 초 성씨 직업상 외에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람이 좋겠다.</p>		<p>▶돼지 침체상태이니 동업을 하거나 투기를 한다면 신용 하락으로 어려워지게 되니 현상 유지에 만족하면 좋을 듯. 형제간에 동업을 피하라. 끝에는 원망만 남을 뿐이다. 1, 7, 11월생 자금 융통이 힘에 겨울 듯.</p>		<p>▶박새 계획한 일이 불경기를 만났다고 낙심하지 마라. 참을성이 필요하고 더욱더 노력해야겠다. 2, 5, 9월생 앞아서만 성취하려면 득이 없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수임도 늘고 보람이 클 듯. 동쪽이 길하다.</p>